

學術振興政策의 方向과 展望

趙 宣 濟

(文敎部 學術振興課長)

I. 序

大學의 機能을 敎授와 研究 및 이를 통한 社會連繫로 본다면 學術研究를 통한 個人能力의 伸張과 發揮는 社會와 國家發展의 礎石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發展指向的인 오늘날의 高度産業社會에서 學術研究와 振興은 그 重要性이 아무리 強調되어도 지나침이 없고, 따라서 이를 위하여 所要되는 費用은 아무리 많이 投與된다 하더라도 恒時 未洽한 狀態인 것이다. 先進國들의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研究投資比는 그들과의 競爭에서 지고 싶지 않은 識者들의 腦裡에서 떠나지 않고, 특히 民間部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莫大한 投資와 그 結實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挫折感에 빠지게도 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幻想의 세 世界를 약속하는 것 같은 遺傳工學이라든가 半導體産業 같은 것이 研究와 投資없이 希望만으로 技術蓄積이 不可能한 뿐 아니라 莫大한 投資를 쏟아 넣는다 하더라도 어느 程度의 懷妊期間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얻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必要한 研究費를 금방 全力投入을 한다 해도 躁急한 立場이지만 이 研究를 위한 投資費用마저 언제나 不足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現實條件이기에 投入되는 研究費用을 가장 效率化해야 하는 努力은 基本的인 命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는 아직까지도 學術研究助成費의 配分과 效率化面에서 不滿과 非難의 素地가 있다면 어느 누구의 責任이건 간에 不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一次的으로 非難의 화살은 政府

의 配分政策에 돌리게 되고 그런 면에서 政府는 그 效率化와 改善方向을 위하여 많은 努力(研究를 위한 研究)를 해 와서 現在로서는 바람직한 方向으로 定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研究에 대한 窮極的인 責任은 그 受惠者인 個人들에게도 있다. 大學과 大學人들은 끊임없이 研究를 始作하고 繼續하며 終結시켜야 할 莫重한 義務를 지고 있는 것이다.

社會全體的인 與件을 考慮한다면 오늘날의 知識人들이 반드시 어려운 處地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모든 社會的·個人的인 慾求를 다 充足한 뒤에야 研究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遙遠한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II. 學術振興을 위한 努力

現代의 産業國家들은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대처하고 加速的인 技術革新과 研究開發에 의한 國際競爭力의 伸張을 위하여 大學의 研究機能을 強化하고 學術研究를 政策的으로 支援하기 위한 綜合的인 學術研究支援政策을 樹立·施行하고 있다. 이러한 學術研究支援政策은 오늘날 날로 發展해 가고 있는 學問水準과 이에 따른 研究領域의 分化·發展현상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從來의 消極的인 研究支援政策에서 積極的이고 體系的인 助成政策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 要請되고 있다.

그동안 政府는 이러한 學術研究助成政策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1963년부터 大學에 學術研究助成費를 支援해 오고 있고 이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9년에는 「學術振興法」을 制定하고 「學術振興財團」을 設立하는 등 學術振興與

件造成을 위하여 꾸준히 努力해 왔으며 이에 따라 建國以來 量的으로 急成長한 우리의 大學社會에 學問研究의 분위기를 造成·定着시키고 이 제는 學問水準과 研究의 質向上에 努力하고 있다.

基本的으로 優秀한 教授 및 研究要員들이 形成되어야 할 것이므로 大學과 大學院의 教育課程과 內容을 充實히 해야 하고, 그들의 內實을 기하기 위하여 海外研修機會나 國內交流 및 獎學制度가 充實해야 될 것이다. 또한 專門人力으로 養成하기 위한 再研修機會를 늘려야 하고 分野別 共同努力을 위한 學術研究團體, 大學附設 研究所 등을 擴充시키며 그 與件을 造成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研究努力과 結果는 國際間的 學術研究와 連結되어 競爭하고 認定받아야 할 것이므로 國際會議參席이나 發表機會가 提供되어야 하고 急進的인 發展과 變化에 對應力을 주기 위해 短期研修도 권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綜合的인 努力에는 國家가 行政·財政的인 支援體制를 確立해서 떠맡겨 주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努力은 아무리 해도 不足할 뿐 아니라 모 든 것을 다할 수도 없다.

國家의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分野에 대한 民間主導의 努力이 積極的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世界的인 추세에 맞추어 自救하고 自生하지 않으면 企業들의 生存도 위협받게 되리라는 認識이 철저해서서 能動的인 役割을 期待할 때라고 생각된다.

Ⅲ. 學術振興政策의 方向設定

그동안 우리의 學術研究振興 基本目標는 研究의 土壤으로서의 研究氛圍氣를 造成하는데 主眼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政策의 考慮가 必要한 特殊分野, 均衡發展을 요하는 落後分野 등을 補充的으로 支援해 왔으나 이는 研究開發投資의 效率性을 考慮할 때 그 方向設定이 未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의 國家要請에 부합하는 學術振興方向으로서 研究의 우선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重點支援할 것이 要請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研究人力, 資金, 時間에 대한 制限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投資의 效率性을 높이며 학문들 사이의 綜合的인 研究

(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통한 學問水準의 全般的인 向上과 國際水準에로의 도약시기를 앞 당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方向設定이 매우 重要的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우선분야의 優先順位는 研究領域 또는 研究課題 探索을 위한 부당한 研究에 의하여 發展的으로 조성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學術院, 學會, 學術團體나 各급 研究機關 등의 의견을 綜合할 수 있는 機會가 항상 開放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學術振興政策의 基調와 重點 育成分野를 提示해 본다.

1. 學術振興政策의 基調

- 國際水準으로의 學問發展 促進
- 優秀한 研究人力의 養成 및 研究力量 伸張
- 研究活動主體 및 組織의 機能活性化
- 研究財源의 配分 및 活用の 效率化
- 研究內容의 內實化 및 結果活用の 極大化
- 學術振興을 위한 行政的·制度的 支援體制 確立
- 學術活動 支援上의 沮害要因 改善

2. 學術振興의 優先順位 設定

- 80年代 國家發展에 必要한 學術研究
 - 先進產業社會 進入을 위한 基礎科學研究
 - 經濟·社會發展을 위한 政策開發
 - 올림픽에 對備한 體育의 科學的 研究
 - 精神文化 啓發을 위한 人文·社會分野 연구
 - 傳統文化 繼承과 새로운 文化創造 등 韓國學研究
 - 國際化時代에 對應하기 위한 地域研究(area studies)
- 國際水準에 肉迫하는 先導的 分野
 - 數學 및 理論物理學 등의 理論分野, 遺傳工學分野 등
- 均衡發展을 要하는 落後分野
 - 解剖學, 寄生蟲學 등 基礎醫學分野, 情報科學 등 基礎工學分野, 基礎科學分野 등

Ⅳ. 學術研究振興政策의 基本方向

1. 優秀研究人力의 確保

우리의 現實에서 重要的인 研究人力養成의 場이

라고 할 大學이 一般의으로 그 研究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며 또한 學會를 中心으로 한 學術活動이 活潑하지 못한 狀態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大學의 研究機能이 침체되고 있는 原因은 상당수의 大學에서 大學院教育이 아직 完全한 程度에 올라 있지 못하고 있고 각 大學에 附設된 研究所들 중 相當數가 大學內 研究中樞機關으로서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研究用 書籍, 機資材 등 研究環境이 滿足스럽지 못한 水準에 있을 뿐만 아니라, 學術研究支援投資의 絕對規模가 未洽하여 一部 政策的 支援과제를 除外하고는 研究課題에 대한 研究費 支援이 不充分한 狀態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學者들의 集合體로서 學問研究의 共同의場으로 育成되어야 할 學會·學術團體에 대한 支援도 不充分하여 學術情報 交換 등 學術活動이 消極적인 것도 研究力量의 全般的인 伸張을 어렵게 하는 理由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優秀研究人力의 確保를 위한 바람직한 方案들을 整理해 본다.

(1) 教授 및 研究要員 養成課程 重點育成

가. 大學院課程 綜合評價를 통한 選別支援

○ 評價項目

- 教授 : 數, 學位, 專攻, 業績
- 研究施設 : 施設基準 充足度, 施設擴充 展望, 施設管理職人員의 確保
- 教科課程 : 講師擔當 科目數
- 研究支援事項 : 大學院生用 기숙사制度, 獎學制度, 圖書館施設
- 學位輩出實績 : 碩士, 博士

○ 評價結果

- 重點支援 대상 大學(校) 및 學科選定
- 나. 選定된 大學院 課程에 대한 支援強化

○ 集中投資

- 研究陣, 共用施設 등 施設擴充, 圖書館施設 運用의 現代化, 大學院生用 寄宿舍, 研究用機資材確保

○ 研究支援

- 博士課程生에 대한 生活給基準 研究獎勵金 支給
- 碩士課程生에 대한 獎學金制 擴大
- 助教 및 機能職의 確保와 處遇改善

- 指導教授의 講義負擔 減縮 및 研究費
- 教授 및 博士과정의 海外研修機會擴大
- 外國著名教授 및 僑胞學者의 招聘活用
- 研究年制(安息年制)의 確立
- 大學院生 選拔制度의 改善
 - 專攻科目의 比重에 置重
 - 口述考試의 點數化
 - 碩·博士과정의 連繫性制度 導入
- 學位課程運營에 대한 嚴正性
 - 學位授與要件의 強化
 - 論文審査制度의 嚴格化
 - 資格試驗 管理의 嚴正性
- 다. 教授 및 研究要員養成課程 設置大學의 擴大
- 人力要員展望 및 與件의 改善에 따른 指定擴大
- (2) 獨立研究所의 專門人力 研修機能 賦與
 - 가. 研修制度 및 디플로마課程 設置運營
- 短期研修課程—技術習得
- 長期研修課程—課程 履修者에 資格證授與 및 優待策 講究
- 各 大學(校) 學位課程과의 連繫強化—委任講座設置 및 學點認定
 - 나. 大學院生의 研修課程 設置運營
- 實驗 및 論文指導
- 特定分野의 研修機會 賦與
- 實驗用機器 및 施設의 利用便宜
- (3) 海外留學 支援制度 擴大
 - 가. 制度的 助成方案 講究
- 海外教育 및 研究機關에 관한 情報의 供給과 各級 教育機關에 案內室 運營
- 國際機構 및 外國政府로부터의 獎學金 등 財源確保를 위한 努力
 - 外交의 通路를 利用한 側面支援
 - 留學生 交換計劃協定 締結
 - 나. 國費 留學制度 擴大—政策的 育成分野 및 落後分野
- (4) 充員 및 人事管理制度 改善
 - 가. 資格要件의 強化
- 公開採用原則
- 教授要員 및 研究員의 博士學位 所持 優先
 - 나. 研究實績의 反映
- 任用 및 昇進에 反映

○ 研究費의 優先支給

- 다. 碩座教授制(Chair-professorship)의 導入
- 월등히 優秀한 實績을 쌓은 教授에게 碩座名 賦與

○ 研究費 支給

(5) 研究要員의 能力開發

- 가. 國內外 研修機會 擴大
- 나. 포스트닥터 프로그램(post-doctoral programme) 採擇

○ 研究에만 專念

○ 海外研修機會의 優先賦與

○ 研究費 補助

- 다. 研究實績의 反映

2. 學術研究機關의 活性化

研究課題의 大型化 및 共同研究 推移의 母體로서 大學附設研究所를 集中育成해 나갈 必要가 있다. 現在의 研究所들 중 形式的인 設立에 그치고 研究實績이 부진하거나 性格이 類似한 研究所는 加급적 整備 統合되어 나가야 할 것이고 比較的 與件이 具備된 研究所를 선별 支援하는 方案이 併行되어야 하겠다. 또 學問研究에 있어서 綜合的 接近方法의 定着을 위하여 大學內外의 研究所들과의 共同研究가 強力히 권장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研究所別 特殊研究分野를 指定하고 專任研究 教授制가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學會를 비롯한 學術團體의 研究活動을 자극하고 學術情報과 研究結果를 擴散시켜 나가게 하기 위하여 學會單位의 國內外 學術會議의 學術誌發刊 등 學術活動經費의 支援이 擴大되고 學會가 主管하는 國際學術交流 및 學術團體間의 共同研究活動도 積極 권장되어야 하겠다.

(1) 大學 및 大學附設研究所 活動·支援

가. 研究與件 造成

- 教授 研究要員의 增員
- 教授 研究要員에 대한 適正한 待遇
- 適正研究費의 配定
- 研究年制 實施
- 研究施設 및 機器擴充
 - 適正한 研究空間의 確保
 - 研究機關別 所要機材에 대한 基準設定 및 年次別 確保

· 共用 研究施設 活用方案 模索

○ 研究資料 및 機資材 導入상의 沮害要因 除去

○ 研究支援人力 確保

研究補助員, 行政要員, 技能要員等

○ 學術資料 및 情報供給方法 改善

- “學術情報센터” 設置育成
- 圖書館 擴充 및 서비스制度의 現代化
- 專門分野別 資料室(海外學術誌, 其他 關聯 資料)設置 및 內實化

나. 研究財源의 擴大 및 配分의 合理化

○ 大學研究費 財源의 擴大

- 政府支援
- 大學自體의 期成會豫算 一定比率配定, 大學內 財團設立育成
- 企業 및 社會團體 出捐誘導 및 用役契約等
- 外國과의 連繫研究 및 借款導入

○ 研究費 受惠率과 最低額의 引上

○ 中長期 研究課題에 대한 支援擴大

- 研究期間의 週一性 止揚
- 中長期課題의 中間審査制度

다. 大學附設研究所의 選別的 育成

(2) 各 研究所 研究活動의 調整

가. 獨立研究所 運營의 官僚化 止揚

○ 研究의 自律性 및 責任性 強調

○ 研究意慾의 鼓吹

厚生福祉, 獎勵金 등

나. 大學 등 各種 研究機關 連繫性 強化

○ 研究機關間의 機能 및 活動에 관한 調整機構 設置

○ 機能의 分化

· 獨立研究所

- 綜合研究所: 未來指向的 先導技術開發, 各分野間 綜合研究
- 專門研究所: 單位技術開發, 產業技術隘路 打開

- 大學, 附設研究所: 基礎研究, 研究人力養成
- 企業體研究所: 導入技術의 消化 및 改良, 需要開發

○ 研究機關間 協助體制의 強化

- 學術情報 交換體制를 통한 交流
- 學會活動의 活性化에 의한 交流
- 研究課題 導出 및 選定에 관한 協議

(3) 學會活動의 支援

가. 學術誌 發刊費 支援

- 受惠學會의 擴大
- 支援額의 增額과 選別的 集中支援
 - 나. 國際學術會議 誘致 및 支援
 - 다. 國際學術會議 參加支援

3. 學術研究評價 및 活用體制 確立

研究課題와 그 研究結果에 대한 評價를 強化하고 그 活用을 促進하는 것은 研究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 매우 重要的인 일이다. 研究課題의 選定에 있어서는 研究의 必要성과, 豫想되는 成果에 焦點을 두고 研究陣의 研究經歷, 研究實績 등 能力과 廣範한 事前研究狀況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決定하도록 하고, 實際 研究計劃書의 審査과정에서는 公開경쟁을 原則으로 專門分野別委員會를 構成하여 客觀的 基準에 의해 審査하도록 하고 있다. 現在 年間 3,000여건의 研究에 대하여 研究推進과정에서의 中間評價는 豫算·人力 등의 事情으로 充實하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大規模 長期과제에 대하여 中間評價를 制度化하고 研究結果 評價機關을 學術院에서 學術振興財團으로 하여 定期的인 評價研究를 強化해갈 것이며, 分野別 評價委員會를 통하여 實質的인 評價가 되도록 하고 不實한 研究結果에 대해서는 研究費 支給制限 등 制裁를 가하고 優秀한 研究事例를 發掘하여 포상을 하는 등 積極的인 助成策을 強化해 나갈 것이다.

(1) 事前·事後評價의 體系化

가. 研究費 配定の 合理化

- 研究課題 選定過程의 客觀化
 - 原則的으로 公開競争
 - 研究計劃의 嚴正審査
 - 審査內容 公開原則: 基準, 方法, 結果
 - 異議提起 許容
- 研究課題 選定基準
 - 研究遂行能力: 能力과 實績
 - 研究計劃의 妥當性: 人力, 費用, 期間, 期待效果, 實現可能性 등
 - 所要額配分 適正性

나. 研究費管理의 硬直性 緩和

- 研究費 實所要額 支給

· 課題當 調一的 配定止揚

· 課題當 所要額 算定

· 機關別 研究費 綜合管理

- 研究期間의 伸縮性 賦與
- 研究費의 適期支給
 - 다. 中間評價制度의 強化
- 大規模 長期課題에 대한 中間評價
- 中間評價結果의 活用
 - 研究活動 方向에 대한 後續諮問(follow-up advice)
 - 研究費 繼續支給與否 決定 및 所要額 調整

(2) 研究結果의 活用

가. 研究結果의 迅速普及

- 研究課題目錄의 作成 및 配布
- 研究概要輯 發刊
- 研究發表會 支援
 - 나. 研究結果의 國內外 交流支援
- 主要外國語 翻譯能力의 伸張
- 國內學術研究 翻譯支援
- 著名學術誌 發表支援

4. 學術交流의 擴大

學術關係에 대한 研究內容과 結果는 그 自體로서의 存在에서보다는 그의 利用과 效用性에서 價値를 가지게 된다. 그러기에 研究自體보다는 그 內容이 널리 전파되고 比較·研究되어 다른 研究를 위한 基礎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實際로 適用되어 보다 나은 狀態를 創造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國內에서는 大學間, 行政府 및 產業體間의 交流와 접촉이 深化되고, 또한 共同努力, 共同發展의 努力이 있어야 하며 國際間에서도 競爭的인 相互交流가 活發해져야 할 것이다.

(1) 國內交流

가. 教授 短期交流 勤務制 擴大

- 大學間(특히 서울과 地方間) 交流人員의 年次的인 增員 必要
- 大學과 獨立研究機關의 交流勤務制 實施
 - 對象研究機關例: 韓國開發研究院, 科學技術院, 各研究所, 國土開發研究院, 韓國教育開發院, 韓國經濟產業技術院 등
- 大學과 行政府 및 產業體間의 交流勤務 活用

- 招聘教授制 活用
- 共同研究 促進
- 派遣勤務을 위한 休職制(on-leave system)

나. 共同研究 및 學術會議 支援

- 機關(大學·研究機關)間 共同研究 장려
- 汎學問的 研究促進
- 共同學術會議施設 設置運營

(2) 國際交流

가. 教授 및 研究要員의 國際交流擴大

- 國內學者들의 海外派遣 支援
 - 訓練 및 再研修를 위한 政府支援
 - 國際會議 參加支援
 - 學術情報蒐集 및 地域研究를 위한 支援
- 外國學者들의 國內招聘
 - 共同研究, 講義目的에 優先
 - 著名學者들의 세미나, 學術講演誘致支援
 - 國際會議의 國內誘致 主管 권장

나. 國際學術研究 活動을 위한 支援

- 外國研究者와의 共同研究 支援, 특히 韓國學, 基礎科學分野 共同研究 및 各國間 比較研究 우선 支援
- 國內學者들의 國際學術活動에 대한 補償強化
- 在外 韓國人 學者들의 活用
 - 國內學者와의 共同研究
 - 長·短期誘致에 의한 大學院 등 研究機關에서의 集中講義 및 研究指導

V. 展 望

未來豫測과 展望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도 뚜렷한 原則이 없는 듯 모든 狀況들이 極端的인 悲觀論과 樂觀論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한 치 앞도 豫測이 어려운 듯한 國際關係에서는 있기 어려운 國家間 紛爭이나 局地戰들이 突發하고 있고, 브레즈네프의 死後에 대해 아무도 自信있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暗黑箱子 속을 들여다보며 갖가지 展望들은 무성하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 急激한 狀況變化를 가져올지 모르는 世界政勢 속에서도 開發道國들의 發展意志는 來日을 指向하여 爆發的으로 競爭하고 있다. 또한 先進國들로 指稱되는 西歐國家들도 이제는 主체할 수 없이 커져버린 放漫한 社會體制

의 矛盾 속에서 派生된 문제들과 싸우기에 餘念이 없이 오히려 弱小國들을 잠식해 들어가는 듯한 自國保護政策들을 세우고 있다. 갖가지 豫言과 神秘까지 亂舞하는 가운데 世界의 終末을 豫言하는 소리들은 公害·人口·食糧의 危機와 함께 極端的인 悲觀論과 絶望에 부채질하는 듯한 反面에 신기루나 환상과 같은 멋진 新世界가 遺傳工學이나 micro processor 産業의 發展으로 到來할 것 같은 樂觀論이 또한 함께 자리한다.

學術研究의 未來展望을 위하여 科學技術分野와 人文社會 分野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後進開發國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努力은 한층 더 加熱되어 갈 것이나 技術保護主義에 대한 先進國들의 障壁은 점점 더 높아져 가 특히 中進國 水準에 進入한 國家들이 先進技術導入에 이르러 겪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科學技術은 頭腦集約的 産業에로의 轉換이 不可避해짐에 따라 勞賃 등 原價上昇 要因에 의한 輸出競爭力은 低下될 것이다.

人文社會 分野에서는 外來文化의 無分別한 受容으로 價値觀의 混沌에서 傳統文化의 創造과 價値觀의 確立이 要請되고 國際交流 및 對外的인 接觸은 더욱 增大되어 갈 것이고, 특히 우리의 基本문제인 南北間 對峙狀況에 따른 理念의 大결의 基礎形成과 함께 國家發展의 促進을 위한 體制의 基盤形成이 要請되어 政治·經濟·社會의 綜合的 政策研究의 必要性이 增大될 것이다.

이러한 展望을 基礎로 할 때 研究開發投資를 大幅 增大하여 研究力量의 備蓄이 始急하고 膨脹하는 學術情報들을 一貫性 있게 消化·吸收할 수 있는 體制가 構築되어야 한다.

爆發的인 教育熱과 그 果實들이 낭비되지 않고 完全稼動될 수 있는 社會體制와 消化力을 지금부터 갖추도록 努力해야 하겠으며, 이제는 時勢에 따라서 움직이는 短期的인 展望과 豫測에서 벗어나 基礎와 應用學問의 均衡的인 發展과 大學의 研究潛在力을 充分히 開花시키기 위한 條件과 方法들이 定立되어야 하겠다. 跳躍의 努力이 繼續되는 80年代를 튼튼히 하는 努力과 함께 2천년대를 準備하는 長期的인 眼目을 兼備하는 學術研究와 振興을 위한 投資效率性에 主眼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